

# 4월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주춤'... "고용 둔화는 아냐"

##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사실상 내국인 둔화 고용부 "고용상황 악화로 볼 순 없어" 일축

증가세를 이어가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지난달 다소 축소됐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고용보험 둔화가 고용시장 전체의 둔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1510만 80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비 35만 5000명(2.4%) 증가한 수치다. 처음으로 가입자수 1500만명을 돌파한 3월에 비해 10만명 가량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 31만7000명→2월 35만7000명→3월 37만1000명 증가한 바 있다.

이외 외국인 근로자 당연가입 영향이 전체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연가입 대상인 고용허가제(E9, H2비자) 외국인 신규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4000명 늘어난 16만 9000명이었다. 외국인 신규 가입자를 제외하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4만1000명 증가에 그친다. 전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외국인 가입효과 부분 제외한다면 조만간 가입률이 마이너스로 갈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꾸준히 좋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가입 둔화가 고용시장 전체의 불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전 과정은 "가입자 증가폭은 고용상황이 매우 좋았던 지난해 2-3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데, 전체 노동시장에서 취업자수를 볼 때 실제로 사람이 고용돼 있을 확률로 보는 것이 좋다"며 "고용률은 올 3월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 신청자 역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80억원 정도가 낮아진 상태"라며 "2021년 이후 실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고용상황이 나빠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전체 가입자수는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 379만5000명이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10만4000명 증가한 수치로, 제조업 가입자는 생산 및 수출 감

소세에도 지속해서 성장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약 90%는 제조업에 집중돼 있다. 서비스업 전체 가입자수는 103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이 증가했다. 3월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대면활동 정상화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과 보건·돌봄·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힘입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방역 일자리 축소로 인한 교육서비스나 공공행정 분야는 주춤하면서 전체 서비스업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가입이 꾸준히 줄어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이 줄었다. 20대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

올해 1월(-4만명), 2월(-2만9000명), 3월(-2만6000명)에 이어 8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2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가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22만7000명), 50대(8만9000명), 30대(5만7000명), 40대(1만3000명) 순이었다. 지난달 10개월 만에 1조원을 돌파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9617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06억원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9만6000명으로, 3월 말 14만4000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5만명가량 감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도 65만8000명으로 3월(67만5000명)에 비해 감소했고 지급건수도 76만5000건에서 68만6000건으로 줄었다. 1회 지급될 때 지급되는 금액인 지급건수당 지급액은 약 14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김재환기자



G마켓-옥션, 상반기 최대 할인 축제 '빅스마일데이' 개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MGF5100갤러리에서 열린 G마켓, 옥션 빅스마일데이 사진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락앤락, '리틀립 시리즈' 론칭기념 할인전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이 리틀립 시리즈 론칭을 기념해 21일까지 유아용품 할인전을 진행한다. 이번 할인전에서는 이유식기, 빨대컵, 물병 등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200여종의 제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락앤락 리틀립 시리즈는 소재 안전성은 물론 내구성, 위생, 사용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락앤락 '리틀립 실리콘 빨대컵'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소재 안전성 시험을 통과한 플레티넘 실리콘으로 제작됐다. 파스텔톤 색상의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실용성, 사용 편의성까지 두루 갖춘 제품으로 호평 받고 있다. 또 최근 선보인 '리틀립 마방 분유 보온병'은 한 손으로 열기 쉬운 원터치 캡을 적용했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편해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유용하다. '리틀립 수유 준비세트'도 할인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첫 수유 준비에 꼭 필요한 세척용품으로 구성된 최대 18개의 젓병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도 포함한다. '리틀립 실리콘 흡착식판'과 '흡착볼'은 식탁에 안정적으로 고정돼 식사 중 식기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한다. 플레티넘 실리콘 소재로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사용 및 열탕 소독이 가능하다. 락앤락은 11일 오전 10시30분 락앤락몰에서 리틀립 신제품과 이유식 용기, 잔공 쌀냉장고 등 베스트셀러 제품을 할인가로 제안하 '락앤라이브(LocknLive)'도 진행한다.

유나기자

## 현대차그룹 RV 형제 '싼타페-펠루라이드', 美 본고장 인기비결은?

1~4월 싼타페·펠루라이드 전년 비 7.7%, 17.9% ↑

현대차그룹의 레저용차량(RV)이 미국을 중심으로 판매 호조세다. 현지 선호도가 높은 RV 판매 전략이 먹히면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판매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해 1~4월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한 38만1606대의 RV를 판매했다. 연간 기준으로 RV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71.3%)를 뛰어넘은 수치다. 우선 현대차에선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싼타페가, 기아에선 준대형 SUV인 텔루라이드가 실적을 주도했다. 싼타페는 올해 1~4월 미국에서 3만9479대가 팔리며 전년 동기보다 7.7% 늘었다. 2000년 9월 미국 시장에서 첫 진출한 싼타페는 매년 꾸준한 호조세로 현대차그룹 점유율 확대에 기여했다. 2000년 1만332대를 시작으로 이듬해 5만6017대가 팔렸고 2006년에는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를 처음 누르고 미국 내 현대차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이어 10년 뒤인 2016년엔 처음으로 13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싼타페가 RV 본고장인 미국에서 인기를 끈 배경은 현지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디자

인과 동급 SUV 대비 저렴한 가격 덕분이다. 특히 자동차의 본질인 내구성·안전성·편의성 등 품질 경쟁력을 높여 2021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PS+)'를 획득하기도 했다. 싼타페 인기는 현지 자동차 매체 호평으로 이어졌다. 싼타페는 지난 3월 미국 순위 조사 전문 매체인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가족용 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매체가 차급·유형별로 나눠 뽑아 발표한 목록에 따르면 싼타페는 2월 SUV 최고의 가족용 차로 선정돼 '넉넉한 실내 공간과 뛰어난 연비가 인상적인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동생 격인 기아 텔루라이드도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남다르다. 텔루라이드는 올해 1~4월 3만745대가 팔리며 전년 동기 대비 17.9% 성장했다. 미국에서 2019년 5만8604대 판매를 시작으로 2020년 7만5129대, 2021년 9만3705대, 2022년 9만9891대 등 매년 판매 증가세다. 미국 차량통계 전문 매체 '굿카베드'에 따르면 텔루라이드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5번째로 많이 팔린 준대형 SUV다. 미국 시장 내 준대형 SUV 중 4번째로 많이 팔린 현대의 파 일릿과는 판매량이 불과 3대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텔루라이드 역시 디자인과 품질 경쟁력으로 현지에서 인정 받고 있다.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터는 텔루라이드에 대해 "2020년 이후 매년 최고의 차량에 선정됐다"며 "정교하고 강력한 엔진과 편안한 승차감의 텔루라이드는 3월 중형 SUV 중 기준점이 될 차량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텔루라이드 등 고수익 RV 모델을 중심으로 판매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텔루라이드 생산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각 차급별 주력 SUV 들을 중심으로 고수익 차종 판매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광주신세계 신축·이전 속도...조건부 9개 이행계획서 제출

시 요구사항 1개월 이상 검토...교통대책 등 자문안 대부분 수용



광주신세계가 도시관리계획 인안을 위한 이행사항을 8일 광주시에 제출함에 따라 백화점 신축·이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백화점 신축·이전 계획과 관련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제시한 9가지 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를 이날 제출했다. 앞서 시 도시계획위 자문위원회는 ▲기존 백화점의 구조적 활용 방안 ▲전기차 충전 시설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남서측 진출입 가능 조정 ▲지하차도 설치 뒤 기부채납 ▲소로 선형 변경에 따른 보행환경개선 ▲기존 보행육교 철거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적극 해소 등을 광주신세계측에 요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광주신세계는 1개월 이상 검토 끝에 교통

대책 등 9가지 조건에 대해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광주신세계는 시 도시계획위 자문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기존 백화점 활용 방안 경우 판매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공공성이 높은 컨텐츠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카데미, 스타디카페, 지역 특화 공간 등 문화 청소년 관련 시설과 탁아소와 보육시설 등 지역민을 위한 시설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전기차 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2370대 중 116대를 계획했으나 127대로 조정하기로 했고 사업대상지의 남서측 진입부를 진출입이 가능토록 조정하는 자문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지하차도 설치 뒤 기부채납 사항과 관련해 광주신세계는 법적기준에 따라 설치계획

을 진행중이며 기존 보행육교철거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소로 선형변경에 따른 보행단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상2층 또는 3층을 활용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안전 및 보행권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적 기준에 부합해 건축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응급·화재 등 비상차량 동선을 고려한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는 자문안을 수용해 도로확장과 소방차 전개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해소방안으로는 금호월드간 연결다리를 놓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고 금호월드 요구사항을 회신받지 못했지만 그동안 검토했던 다양한 방안을 일단 시에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인근 주변 상인들과의 민원 해소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광주시가 요구한 9가지 이행사항에 대해 1개월 이상 다양한 검토를 했으며 교통대책 등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며 "앞으로 금호월드 등 주변 상인들과의 민원 해소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의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라 백화점 신축·이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광주시 관계 부서 의견 검토, 주민 의견 수렴,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고시, 건축 인허가 단계 속 교통 영향평가·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대규모 점포 허가·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선욱기자